

2학년 6반 김민준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봄날씨지만 쌀쌀한 날씨} 봄날씨지만 쌀쌀한 날씨

제목 : ^{어깨}아빠 어깨 뼈가 부러지다

지난주 일요일 나와 아버지는 야구 경기에 갔다.

아버지가 출전 하셨는데 슬라이딩을 하셔서 어깨 뼈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급기야 어제 정형외과를 갔는데

어깨 뼈가 부러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팔에 깁스를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불친절한 의사 때문에 화가 나셨고, 나는 아버지가 오른쪽 팔에 깁스를 하셔서 슬펐다.

나는 커서 의사가 된다면 친절함 의사가 되고 싶다.

2학년 6반 김민준